

지지부진 동부경찰서 이전, 올해는 물꼬 틀까

2008년부터 청사 신축 이전 추진
2017년 용산동 부지 최종 결정
소유자 토지 보상안 거부 '난항'
법정 다툼 속 동구 "협이 최선"

광주 동부경찰서 이전 사업이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광주경찰은 지난 2017년부터 동구 용산동 일대를 '동부경찰서 신축 청사 부지'로 정하고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토지 매입 단계에서 소송전이 진행되는 등 수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기약 없이 길어지는 모습에 민원인·소속 경찰·인근 상인들은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 동구·광주경찰 등 관계 당국은 '올해는 꼭 이전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 1982년 개소...좁고 노후화 심각

"경찰서에 한번 오려면 큰 결심을 해야 해요. 이곳 위치가 유동인구가 많은 동구 중심지잖아요. 주차할 곳도 마땅치 않고 사람도 많아 정신 없죠. 이리 인프라가 안 좋을 줄 몰랐어요."

광주 동구 대의동에 위치한 동부경찰서를 찾은 이모씨는 민원을 접수하고 나오며 열악한 이곳의 모습에 혀를 내둘렀다. 48면의 주차 공간은 순차차와 기동대로 가득차 있었고, 그나마 찾은 빈 자리도 너무 비좁아 주차에 진땀을 빼야 했다.

불편함은 민원인 뿐만이 아니다. 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과 인근 상인들도 다양한 불만을 토로한다.



광주 동부경찰서 부지 이전이 토지 소유자의 보상안 거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9일 광주 동부경찰서 전경. 김양배 기자

동부서 관계자는 "주차도 큰 문제지만, 좁은 내부 시설과 노후화된 건물도 큰 골칫거리다"며 "민원인들이 몰리면 대기실이 좁아 복도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럴 때 수사 진행 상황이 외부에 노출될까봐 노심초사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경찰서 주변 도로가 넓은 편이 아니다. 차량 통행 문제로 하루에도 몇 번이나 경적이 울리곤 한다"며 "경찰서 이전 얘기가 한참 전부터 나왔었는데, 수년이 지나도 그자리 그대로다. 이곳 인근엔 아시아문화전당도 있고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곳이지 않나. 동부서가 얼른 이전되고 이

것들을 더욱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들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 이전 부지 소유주 소송 제기

1982년 문을 연 동부경찰서는 건물 노후화와 주차공간 협소, 외벽 균열·누수 등 문제를 안고 있어, 지난 2008년부터 청사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동구 계림동 구시청·동명동 옛 광주여고 부지 등 여러 곳이 검토됐으나 추진과 무산이 반복됐다. 그러다 광주경찰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2017년 동구 용산동 300-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1만 5151㎡)의 동부경찰 신청사 건립을 결정했다. 동부경찰은 동구에 도시관리계획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신청했고, 동구는 지난 2020년 지형도면고시처분 등을 내리며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신청사 건립은 신축 예정 부지 확보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건립 부지의 74%(약 4000평)를 소유하고 있던 필지 소유주가 광주경찰이 제시한 토지 보상 조건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소유주는 크게 △도로 개설 △부지 금액 협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여러 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갈등이 심화되자 토지 소유주는 지난 2021년 9월 광주지방법원에 동구를 상대

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그해 10월13일 동구청이 패소했다. 법원은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결여'를 이유로 들었다.

현재 재판은 동구의 항소로 지난달 19일 1차 변론까지 마친 상태며, 내달 9일 2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2차 변론에서 재판이 끝난다면 오는 4월, 2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동구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소유주가 본인 소유한 신축 동부경찰서 및 땅 주변으로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협의를 통해 동부서를 관통하는 도로를 내주기로 합의 했다"며 "그러나 일부 부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소유주는 자신이 창고로 사용하고 있던 약 1900평 부지에 대해 부담하기 어려운 돈을 요구했다. 법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신임 서장으로 부임한 조영일 동부경찰서장은 "해당 사안을 무겁게 생각하며, 관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서장은 "경찰서 인프라 부족에 대한 문제점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동부서 이전의 필요성이나 추진 속도에 대한 고민은 충분한 상태다"며 "동부경찰 주변에는(예술의거리·ACC·전일빌딩 등) 역사·문화적으로 훌륭한 거점이 자리잡고 있다. 서가 이전되면 이런 지역적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도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2분만에 실종자 발견... 문자 경보 효과 '톡톡'

지체장애 60대 女 시민 신고 발견
지난해 치매환자도 제보로 찾아

광주 지역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종자를 알리는 '실종경보'가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9일 광주 남부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0분께 지체장애를 앓고있는 이모(63)씨가 폐지 수집을 하겠다고 집을 나

선 뒤 귀가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이씨가 같은 날 오전 7시40분께 광주 남구 백운동 거리를 지나가는 것을 확인했지만 이씨가 휴대전화를 두고 집을 나선 탓에 이후 행적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경찰은 오전 9시8분 이씨의 생김새와 복장 등을 담은 '실종경보'를 지역 주민들에게 발송했다.

불과 2분 만에 '실종 알림 내용과 비슷한 차림을 한 여성이 건물 계단에 앉아있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전 9시35분께 남구 봉선동 청소년수련관 계단 1층에 있는 이씨를 발견했다. 다행히 이씨는 건강 등에 이상이 없어 곧바로 가족에게 인계했다.

실종경보는 지난해에도 그 역할을 톡톡

히 해냈다.

광주 서부경찰은 지난해 3월24일 오전 9시14분께 서구 화정동에서 A씨가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로 수색을 개시했다. 그러나 탐문 수사에 어려움을 겪자 경찰은 실종 당일 오후 11시50분께 실종 경보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 다음날 오전 8시50분께 경찰은 '광주 북구 일곡동 일대에서 문자메시지 속 A씨와 비슷한 옷차림의 사람을 발견했다'는 세번째 시민 제보를 받았다.

곧바로 북부경찰 일곡지구대 순찰팀이

현장에 출동, A씨를 발견했다. A씨가 집을 나선 지 29시간여 만이었으며 실종 경보 발송 시점으로부터 21시간 만이었다. A씨는 무작정 앞만 보고 걸으며 거리를 배회하다 별다른 연구고 없는 일곡동까지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발견 당시 A씨의 건강 상태는 대체로 양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신고로 실종된 분을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려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혜인 기자

광고문의

팩스 062-519-0709
지통 062-519-0710

全南日報

드론타임 DRONE TIME

고퀄리티(4K) / 저렴한 가격
드론 촬영·편집

스포츠행사/축제/산업현장
호텔/펜션/학교
부동산광고·분양/지적도
선박특수촬영/생선시찰/양식장
아파트/교회
웨딩/이벤트/(웹)드라마 등

드론타임
010-5681-8084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성공을 부르는
직장인 스피치

멋지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아버지 스피치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봄에 떠나는 그라운드를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